

IBKS CARBON FINANCE DIVISION

Invitation to Better Carbon Story

WEEKLY REPORT
VOL.21
2025.11.10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

TOP HEADLINES

- EU, 2040년 90% 감축 목표에 맞춰 새 NDC 범위 확정
- EU, 2040년 목표에 '유연성 확대' 합의, 국제크레딧 최대 5% 인정
- EU-UK ETS 통합 논의 본격화, CBAM 상호 면제 기대
- OECD, 2035 NDC 상향·탄소누출 대응 촉구
- 인도네시아, COP30서 9천만톤 규모 탄소크레딧 제시
- 라오스, 파리협정 제6.2조·CORSIA 대상 메탄감축 크레딧 승인
- Gold Standard, 150만개 쿡스토브 크레딧 CORSIA 1단계 승인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

EU, 2040년 90% 감축 목표에 맞춰 새 NDC 범위 확정

EU가 2035년까지 1990년 대비 66.25~72.5% 감축 범위를 목표로 한 새로운 NDC를 합의함.

이는 2040년까지 90% 감축 및 2050년 탄소중립 목표와 연계된 것으로, COP30에서 전 세계적 협력의 중요성과 실질 이행 가속을 강조하려는 의도

COP30에서는 새로운 합의나 제도보다는 실행 가속화가 초점이며, 특히 탄소가격제 확대, 청정전환의 비가역성 확인, 각국이 제출한 NDC만으로는 1.5도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 '감축 격차(mitigation gap)'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소하려는 논의가 EU의 전략적 의제가 될 전망

EU는 또한 COP28에서 합의된 화석연료 감축 약속의 이행을 점검하고, 적응 및 기후금융의 구체화를 추진할 계획

Article 6과 관련해서는 구체적 거래 합의보다는 협력 탐색 단계로서, 장기적으로는 유럽이 국제 탄소크레딧의 품질 기준 및 규제 표준을 주도하겠다는 입장



EU, 2040년 목표에 '유연성 확대' 합의, 국제크레딧 최대 5% 인정

유럽위원회가 2040년 90% 감축 목표 달성 방식에 대한 회원국들의 '유연성 확대' 요구를 수용함.

금번 합의는 전체 감축량의 최소 85%를 반드시 국내 감축으로 달성해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나머지 최대 5%는 파리협정 제6조 기반의 고품질 국제 탄소크레딧으로 상쇄할 수 있도록 허용

국제 상쇄는 2031~2035년 시범단계를 거쳐 2036년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

유럽의회는 자체 협상안을 채택한 뒤, 환경위원회가 주도하여 유럽위원회 및 덴마크 의장국과 함께 최종 문안 협상을 진행할 계획

EU 회원국 장관들은 또한 ETS2 시행을 2028년으로 1년 연기할 것을 제안하고, 기존 ETS 내 중공업 부문 무상할당의 폐지 속도를 완화하며, 에너지 가격 변동이 산업과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는 검토조항 (review clause) 도입도 요청



EU - UK ETS 통합 논의 본격화, CBAM 상호 면제 기대

EU 회원국들이 영국과의 탄소시장 연계 협상 개시를 위한 권한 승인에 나설 예정

권한이 승인될 시, 유럽위원회가 EU27을 대표해 영국과의 협상을 공식 주도하게 될 것

금번 협상은 양측 ETS를 연계해 상호 CBAM (탄소국경조정제도) 면제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 하며, 이미 5월에 초기 합의가 이루어 졌음.

다만 영국이 EU 법체계 및 사법재판소 권한을 일부 인정해야 하는 점, 재정 기여 문제 등이 난제로 남아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EU-스위스 사례 (10년 소요)보다 훨씬 빠르게 협정이 체결될 것으로 전망



OECD, 2035 NDC 상향·탄소누출 대응 촉구

OECD가 발표한 'Climate Action Monitor 2025'에 따르면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 속도가 둔화되는 추세

OECD 및 파트너 국가의 총 배출량은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수준보다 약 8% (약 25억 톤 CO₂e) 높으며, 2050년 넷제로 목표 와도 궤도 불일치가 크다는 분석

부문별 배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전력·열 생산 부문 (33%)이며, 운송(15%), 제조(13%), 건설·산업공정(11%)이 그 뒤를 따름.

OECD 회원국은 2015년 이후 전력·제조 부문에서 감축을 이뤘으나 운송은 정체, 비회원국은 전력·열 부문 등에서 배출 급증 추세

1인당 배출량은 OECD 국가가 비회원국의 두 배 수준으로, 자동차 의존도 및 냉난방 수요가 주요 원인

OECD는 각국에 2035년 NDC 목표를 강화하고, 넷제로 목표 법제화 및 탄소누출 방지를 위한 국제 협력 강화를 촉구

조치가 지연될 경우 금세기 내 지구 평균기온이 최대 6°C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



인도네시아, COP30서 9천만톤 규모 탄소크레딧 제시

인도네시아는 COP30에서 총 40개의 탄소감축 프로젝트를 선보이며 약 9천만톤의 탄소크레딧을 제시할 예정

포트폴리오는 에너지 전환 (지열·가스·수력 등), 산림·토지이용, 폐기물 관리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프로젝트는 이미 인증(약 1,140만 톤)을 완료했으며, 약 15건은 검증 중, 나머지는 초기 단계 (잠재 발행량 약 7,360만 톤)

국영기업과 민간개발사 모두 참여하고 있으며, 지열·수력·바이오가스, 이탄지 복원, 팜오일 메탄회피 등 다양한 감축활동을 포함

인도네시아는 COP30 개막에 앞서 상파울루에서 투자자 대상 비공개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ICVCM (자발적탄소시장청렴위원회)과의 MOU를 통해 국제 투자자 신뢰 확보 및 시장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

또한 2035년까지 NDC 달성을 위해 4,726억달러 (약 689조 원)가 필요하다고 밝힘.



라오스, 파리협정 제6.2조·CORSIA 대상 메탄감축 크레딧 승인

라오스 정부가 축산 메탄 감축 프로젝트에 대해 최대 300만톤 규모의 감축실적 (탄소배출권) 발행을 승인

소의 사료 개선을 통해 메탄 배출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을 적용한 본 사업은 파리협정 제6.2조와 CORSIA 체계 모두에 따라 운영되며, 발행분 중 10%는 라오스의 NDC 달성용으로 사용

발행되는 크레딧 중 10%는 라오스의 NDC 달성용으로 사용되며, 나머지는 국제 이전 (ITMO 또는 CORSIA용) 가능. 다만 이중계산 방지를 위해 해당 감축분은 자국 NDC 성과로 산정되지 않음.



Gold Standard, 150만개 쿡스토브 크레딧 CORSIA 1단계 승인

골드 스탠다드가 말라위의 바이오매스 쿡스토브 프로젝트 약 150만 톤을 CORSIA 1단계 상쇄용으로 승인함.

이는 전 세계적으로 ART TREES (가이아나 REDD+)에 이은 두 번째 CORSIA 공식 승인 사례로, 제6조 상응조정이 확인된 첫 GS 기반 CORSIA 공급

ICAO (국제민간항공기구)와 IATA (국제항공운송협회)는 이번 승인으로 항공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공급원이 생겼다고 평가하며, 각국이 제6조 조정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



IBKS 탄소금융본부 사업

탄소배출권

■ 규제 탄소배출권 트레이딩

- 국내 탄소배출권 장내 거래(KRX)
- 국외 탄소배출권 현물 거래(EU, 중국 등)

■ 자발적 탄소배출권 트레이딩

- VERRA, GS 등 매매
- 비규제 글로벌기업 대상 배출권 공급

■ 국내외 탄소배출권 사업개발

- 규제 및 자발적 시장 통용 가능 국내외 배출권 사업 개발 및 배출권 확보

환경에너지 파생상품

■ 에너지·원자재 선물 거래

- 탄소시장 유관 종목 개발 및 제공
- 원유, 납사, 곡물, EU배출권 등

■ 탄소배출권 펀드 개발 및 운용

- 업종별 특화 탄소배출권 펀드 상품화
- 국내외 탄소배출권 펀드 참여

■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조달

- PPA Offtaker / Spot REC 중개 & 주선
- 국내 발전소와 글로벌 RE100 기업 연계

탄소 금융조달

■ 구조화 상품 개발 및 중개

- Clean-Tech 기업 & 기술 & 설비 투자
- 주식, 채권, 원자재 등 파생결합분야 확대

■ 친환경 자산개발 PF

- 친환경 건축물,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등
- 스마트팩토리, 친환경공정설비 도입 등

■ ESG 특화 벤처 투자

- K-Taxonomy 기반 평가 및 금융 제공
- 기업 성장 동력 & Value & 수익 확보

■ 유의사항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IBK투자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수수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IBK투자증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BK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6-20호
(2026.03.17 ~ 2027.03.16)

IBK투자증권 탄소금융부
carbon@ibks.com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